특별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조승민
광주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몇 년 전부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소확행' 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소확행' 이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의 불확실한 미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소확행' 이 내포한 뜻을 바꿔버린 것 같다. 예전에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소비현실을 의미하는 것을 뜻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삶의 기쁨을 찾는 의미로 변화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펜데믹으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많은 기업은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 확산을 촉진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일과 삶의 균형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화관광의 일상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여행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게 되는 스테이케이션, 즉 노동의 공간과 여가·관광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더불어 안전과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먼 바다, 산, 계곡 등 도심에서 벗어난 곳을 휴가 장소로 한정했다면, 요즘은 집 근처,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휴가를 즐기는 사람, 이른바 호캉스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축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되고 있지만 재난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골목상권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소비는 증가했고, 골목상권의 생태계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공감대 역시 확대됐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다. 경제 생태계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가장 취약한 지점인 골목상권에서부터 활성화 시켜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골목상권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BC카드 빅데이터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의 주요 25개 상권을 조사해 연평균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감률을 집계한 결과 이 기간 연평균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 1~5위는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홍익대, 삼청동, 경리단길, 서울대입구역으로 모두 골목상권이 형성된 곳들이었다.

또 모 교수는 골목상권의 조건으로 문화인프라(Culture),임대료(Rent),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접근성(Access), 도시디자인(Design), 정체성(Identity) 등 여섯 가지를 꼽고, 이를 'C-READI' 모델이라 지칭했다.

동구도 'C-READI' 처럼 문화 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골목상권이 있다. 박인천가 골목은 금호시민문화회관, 오가헌, 김냇과 등 근대건축물과 문화시설, 맛집이 형성되어 있으며, 의재로 거리는 의재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등 예술시설과 전통문화관과 전통찻집, 맛집이 형성돼 있다.

또 오지호가 골목은 오지호 화백, 문병란 시인, 이한열 열사의 인문자원과 지산유원시설, 동구의 대표음식 보리밥 등 인문학적 문화가 있는 골목이다.

문화인프라, 정체성 등이 구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을 주축으로 기존의 문화자원과 더불어 풍부한 상업시설을 가지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는 요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고용창출과도 연계할 수 있다. 요즘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을 누가 책임질 건지 생각해야 한다. 바로 그 해답은 로컬, 골목에 있다고 생각한다. 골목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도시 문화가 고용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가장 좋은 예가 동명동이다.

독특한 거리문화 발굴해야

쇠퇴해 가는 동명동은 로컬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동명동에서 기존의 건축 양식을 살리고 Z세대를 겨냥한 인테리어, 레시프 개발 등 문화생산자로 활약하면서 골목,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브랜드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골목문화의 정체성을 접목시킨 다양한 상업시설이 골목에 자리 잡았을 때 특정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만, 골목길 창업자를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창업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문화기획자 등 골목길에 다양한 창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골목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창출하고 그것을 소비할 것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하고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투자해야한다. 육성한 전문가들과 골목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상인들, 그리고 새롭게 창업하는 신규 창업자와 협력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소비자 유형을 고려하여 골목만의 독특한 거리문화와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소확행' 이 유명 관광단지가 아닌 우리 옆의 골목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설

광주공항 이전 상생해법 찾아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연계해 이전할 것을 권고하며, 이 시장이 두 공항을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전남도와의 약속을 지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민권익위가 공개한 공항 이전 관련 시민 2,500명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공항의 적절한 이전 시기에 대해서 30.1%가 '군 공항과 동시 이전', 49.4%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뤄질 때' 라고 답했다.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이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시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민간 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 운영 조례에 따라 1개월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시장은 최근 "시민권익위 건의 내용이 오면 시민 의견, 전남도와의 상생, 광주·전남의 번영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이 시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광주시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및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 협조' 를 명시한 2018년 시도간 협약은 파기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면서 모처럼의 시·도간 상생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민권익위 권고는 이행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 시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지역 초미의 관심사다. 안팎에서는 자칫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도 상생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상생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심상찮은 코로나 지역 확산 걱정 크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감염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닷새 동안에만 신규 확진자가 30명에 육박하는 등 '게릴라성 감염' 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겨울철 재확산세가 본격화될 시점인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광주·전남에선 최근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 감염자도 있지만 확진자 상당수는 대부분 지역 감염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물론, 전남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당수는 인적접촉이 많은 공공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병하고 있다.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릴라성 감염이 걸린다. 순천 시중은행발 확진자가 7명에 이르고, 광주교도소와 광양 기업체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 유흥주점 종사자도 2명 확진돼 이로 인한 'n차 감염' 도 걱정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 중 3~4명은 아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니 우려된다.

가장 걱정스런 것은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그동안 미뤄온 결혼식과 사회모임, 동호회 등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러한 모임을 통한 게릴라성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조용한 전파' 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현재의 지역 감염상황을 봤을 때 지난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 양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는 철저한 예방은 물론이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유영재의 와인이야기

'J 커브' 그래프

'J-shaped curve' 란 하루에 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이 알코올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렇다면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은 지점의 알코올양은 얼마나 될까? 이 지점이 바로 하루에 여자는 와인 한잔 남자는 두 잔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와인 한잔이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큰 와인 잔도 있고 작은 와인 잔도 있으니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 와인 한 잔이란 의미는 와인 한 잔에 들어 있는 10g의 순수한 알코올양을 말한다. 이의 기준은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근거는 무엇일까? 이 이론은 1926년 미국의 래이먼드 펄(Raymond Pearl) 이라는 생물학자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Institute for Biological Research)에서 닭의 생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코올을 먹인 닭이 그렇지 않은 닭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후에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15-99 사이의 백인 노동자의 결핵 원인을 밝히는 연구에 알코올 섭취를 포함해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적당량을 지나 알코올 섭취가 늘어날수록 수명은 짧아졌다. 이 사실을 담은 책 알코올과 장수(Alcohol and Longevity)가 발표되자 비난이 들끓기 시작했다. 알코올은 수명을 단축한다는 믿음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그래프는 의사인 로널드 언젤맨(Ronald F. Unzelman)이 래이먼드 펄(Raymond Pearl)에 관한 글에서 수치를 그래프화 시켰다. 1970년대 의사였던 아서 클라즈키(Arthur Klatsky)가 연구를 통해 래이몬드 펄(Raymond Pearl)의 이론을 증명했다. 그 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봇물 터지듯 했다.

디 카스텔노브(Di Castelnuove)와 동료가 2006년 남녀 101만5,835명을 대상으로 한 34건의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남자 2~4잔 여자 1~2잔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은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망 위험률을 낮추는 알코올 섭취량에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와인 반 표준 잔을 마실 때 사망 위험률이 줄어들고 최대한도로 남자는 4 표준 잔 여자는 2 표준 잔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3 표준 잔 이상이면 사망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루에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는 사망 위험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의 결과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J-shaped curve' 를 상기할 때마다 한국인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인의 음주 패턴을 'J-shaped curve' 에 적용해 보면 폭음을 하는 한국 직장인은 지금쯤 씨가 말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직장인은 끄떡없지 않은가.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폭음 후 며칠 술을 마시지 않는 패턴 때문에 'J-shaped curve' 가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와인 사이언스 박사, 와인 품질학 석사, 시드니 동그라미 문학회 회원

독자광장

전화 금융사기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에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에서는 곧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야 하는 요즘 계절에 구애 없이 유행하는 코로나19 처럼 전화사기 범죄는 기세등등하기만 하다.

전화 금융사기의 수법도 점차 진화의 단계를 거듭하는 것 같다, 10여 년 전만 해도 피해자 가족 납치, 경찰 검찰 등 국가 기관을 사칭했으나 최근에는 과거 계좌이체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천만에 이르는 현금을 받아가는 대담성을 보이기까지 한다. 또한 대출을 저금리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예방 홍보와 더불어 범인이 쉽게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계좌지급정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있으나,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나타나면서 계좌 지급정지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졌다.

그 밖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신용)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 종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 요구나,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상대방이 수십, 수백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임을 명심하고 경계해야겠다.

/고흥경찰서 과역파출소장 경감 한종선

자동차 노조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기자수첩

이나라
경제부 차장대우

국내 완성차 노조들이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현대차 노사가 11년 만에 기본급을 동결하고 올해도 무분규 합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보이자 지난달 23일부터 쟁의행위 차원에서 잔업·특근 거부와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4차례 부분파업으로만 1만 2,000대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기아차 노조 역시 지난달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뒤 사측에 잔업 복원과 전기차 및 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 사내 유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노조의 파업수순밟기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저런 비난과 비판에도 자동차 노조는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들 잇따라 파산하는 요즘같은 시기에 파업은 참 배부른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고통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파업은 가뜩이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완성차 공장은 물론 하청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다른 완성차 업계와 다르게 '함께 사는 길' 을 택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우선은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 시기에 감내했던 것들은 차후에 보상받겠다는 전략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봐야 한다.

지금이 파업을 해야할 시기인지 완성차 노조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사회부 (062) 720-1050~54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4 월간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문화부 (062) 720-1071 판매국 (062) 720-1004
체육부 (062) 720-104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사회부장 010-6633-8826 •FAX (062) 720-1080~81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